

[책 소개] 베트남 세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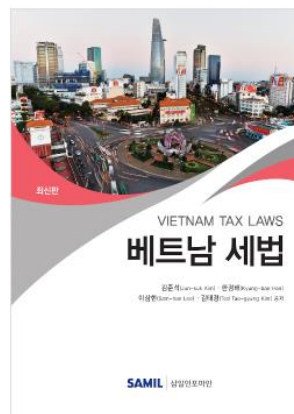
안녕하십니까? s&s 회계법인입니다.

2019년 7월 s&s 회계법인 이삼한 회계사님께서 공저자로 참여한 '베트남 세법'이 출간되었습니다.

본 책은 베트남 세법에 대한 한국 내 최초의 출판물이며, 베트남 진출기업 또는 베트남기업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베트남세법의 주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. 베트남 현지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본과 영문본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.

베트남 주요세법인 조세관리법, 법인세법, 소득세법, 부가가치세법, 외국인계약자세, 이전가격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.

현재 책자는 한국 시중에서 구매 가능하며,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.



<베트남 세법>

한국경제

2019년 08월 05일 A24면

세계 첫 '베트남 세법' 해설서...국세청 출신 세무사 등 집필

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대형 로펌 회계사 등이 베트남세법을 정리한 해설서를 내놨다.

국세청에서 국제조세를 담당해온 김준석 광장리앤고 세무사와 한경배 EY한영 상무, 이삼한 베트남 S&S회계법인 대표, 김태경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 등은 베트남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세법 규정을 총정리한 <베트남 세법(2019)>(삼일인포마인)을 발간했다. 베트남세법 해설서는 베트남 현지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정리되거나 발간된 적이 없었다. 책을 국문과 영문 2개 언어로 발간한 것도 이 때문이다.



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자 제2위 교역국이다.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삼성 전자, LG디스플레이, 포스코, 현대중공업 등 7000여곳에 달한다. 그동안 베트남 세법 해설서가 없어 기업들은 각종 조세 분쟁 대응에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. 이 책에선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베트남에만 있는 고유한 세제인 '외국인계약자세'를 비롯해 '이전가격세제'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.

< 한국경제 2019년 8월 5일자 언론보도 >

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15&aid=0004186753>

